

일본화투(花札)도안과 사계*

김정미**
jumi0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하나후다 図案과 詩歌 |
| 2. 선행연구의 검토 | 5. 나오며 |
| 3. 하나후다의 유래와 변천 | |

主題語: 하나후다(Hanafuda), 화조풍월(HwaJoPungWol(flowers, birds, wind, moon)), 고전시가(Classical Poetry), 경물(Scenery and Customs), 카루타(CALTA)

1. 들어가며

에도(江戸)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대략 1세기에 걸쳐 일본 대중오락의 왕좌에 군림했던 일본화투(花札-이후 하나후다로 총칭)는 총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에서 12월까지 꽃 나무 새 사슴 맷돼지 개구리 등 사계의 대표적 경물이 도안되어 있다. 예로부터 일본인은 「계절의 변화와 순환에 민감하며 유형화된 계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 등 지배계급의 입장에 있어서는 공동체 영위와 왕권유지 발전을 위해 曆月과 年中歲時記 운용이 중요한 과제」¹⁾였다. 이처럼 절기의 순환을 통치에 활용한 일본인이 사계의 경물을 오락기구의 일종인 하나후다 도안에 담았다는 것은 다소 특이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 경물 선택의 근간에는 『만요슈』(『萬葉集』)를 필두로 『고친와카슈』(『古今和歌集』) 이하 『고친슈』로 약칭) 『신고친와카슈』(『新古今和歌集』) 이하 『신고친슈』로 약칭) 『하치다이슈』(『八代集』) 등 古典詩歌의 영향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후다 도안은 일본의 변화무쌍한 사계의 감상과 상념이 담겨있으며, 초기의 것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일본인의 사계에 따른 시정(詩情)이 하나후다 도안에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 이 논문은 2017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함

** 세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1) 최재철(2014)「일본 고전문학 속의 사계 표현」『외국문학연구』제53호, p.459

경물의 조합을 통해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중세시대 전파된 「CALTA」가 하나후다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각 패에 내재된 일본인의 자연관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하나후다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나후다 유래와 게임운용 방법 등 도박과 관련된 연구, 둘째 하나후다 경물과 고전시가의 비교 연구, 셋째 한국 화투와의 비교연구이다. 첫째 연구는 미야타케 가이코쓰(宮武外骨)의 『도박사』(『賭博史』)를 필두로, 아마구치 카쿠타로(山口格太郎) 『운순카루타초』(『うんすんかるた抄』), 사무가와 히로유키(寒川廣行) 『화투입문』(『花札入門』)은 하나후다의 유래와 종류, 구체적 게임방법 설명 등 하나후다에 대한 개괄적 이해에는 도움은 되지만, 게임의 운용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문적 접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음은 오가와 고헤이(大川五兵衛)의 『화투 도안의 고전적 배경』(『花札の図柄の古典的背景』), 『고가의 동식물 조합고찰』(『古歌の動植物取合せ考』), 『속·고가 동식물조합 고찰』(『續·古歌の動植物取合せ考』)의 시리즈 논문은 하나후다에 도안된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물을 일본고전시가에서 언급된 화조풍월의 소재와의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시리즈 논문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경물에 대한 설명이 중복되고, 일본인의 자연관에 관한 논증보다는 경물의 나열과 소개에 중점을 두었다.

또 이케마 리요코(池間里代子)의 「하나후다의 도상학적 고찰」(「花札の図像学的考察」)은 각 달에 배치된 동식물의 조합을 중국기원설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확실히 6월의 소재 목단과 나비, 9월의 국화와 감곡천 유래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엿보이지만 모든 계절의 경물을 중국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은 권현주 「花札의 “전통 문화 기호”와 花闌의 “놀이 문화 기호”考察」 연구는 하나후다를 전통문화 기호로 분류한 하나후다와 한국 화투와의 비교고찰이다. 안현수 「화투를 통해 본 日本古典詩歌에 관한 고찰 -萬葉集 및 八代集을 중심으로-」는 하나후다 월별 4장에 도안된 경물에 대한 설명과 게임방법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고찰하고 있지만, 일본고전시가의 소재가 하나후다의 도안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후다 도안의 배경을 통하여 일본인의 사계에 대한 관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하나후다 유래와 변천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된 카드는 포르투갈의 카루타²⁾이며, 48장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 1818-1843(文政~天保) 사이에 제작된 天正카루타라고 한다.³⁾ 이 天正카루타는 총포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일본전역에 전파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규슈(九州)의 남만종(南蛮宗) 다이묘(大名)가 유럽에 보낸 소년사절단이 유럽 체재중 이 카루타의 존재를 알아 귀국 시 소지하여 그 사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⁴⁾ 天正카루타는 규슈의 미이케(三池)에서 복사 제작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하나후다의 원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카루타의 열기가 고조되자 막부에서는 1597년(慶長2년) 금지령을 단행한다. 1597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침략을 재단행한 해로서 당시 전장에 출병한 병사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강행한 금지령이다. 당시 병사들의 도박의 열기에 대해 하코자키 소이치(箱崎総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天正 永祿 慶長으로 이어지는 전국시대는 규슈방면에 많은 영웅호걸이 대두하고, 각지에서 전투가 성행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오락도 없는 그런 시대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날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에서 틈 날 때 즐길 거리를 찾았던 병사에게 이 天正카루타는 더할 나위없는 오락이었다. 이 도박은 날이 갈수록 그 열기가 지나쳐 나중에는 병사들이 갑옷을 비롯하여 말이나 칼까지 걸고 도박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우두머리들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⁵⁾

하지만 이러한 열기도 금지령 이후 30여년 가까이 침잠하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에도치세가 시작하면서 「카루타 장려정책」 시행으로 다시 고조된다. 이 정책은 하나후다 역사에 있어 혁명과도 같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관리나 무사들 사이에서만 성행했던 카루타가 일반인에게 침투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소설 『본조이십불행』(『本朝二十不幸』)에 당시의 서민들의 도박열기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⁶⁾

2) 山口格太郎(1961)『うんすんかるた抄』リ-チ社、p.81

3) 寒川廣行(1982)『花札入門』日本文藝社、p.17 재인용

4) 大隈秀夫(1978)『ギャンブル風土記』日本交通社、p.63

5) 箱崎総一(1981)『ツキを呼ぶ本』毎日新聞社、p.120

6) “어느 날 상인 집에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을 때, 대단히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 20량이나 되는 돈을 거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마음을 줄이며 “혹시 머리가 이상해 진 것 아니야? 이런 도박을 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고 했다. 그러자 이 구두쇠는 웃으며 “자네가 이상히 여기는 것도 당연한데 지금 어떤 장사를 한다 해도 2배로 불어나는 것은 이것 밖에는 없다네. 가령 나가사키(長崎) 상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비해 큰마음 먹고 즉석에서 승부를 걸면 천 냥(千兩)이 금세 이천 냥(二千兩)이 되는 이 수지맞는 일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이 정말 유감이다. 재물을 배에 싣고 스미요시 신(住吉大明

이처럼 도박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막부는 1702년(元祿15) 다시 금지령을 내리고 도박자들의 일제검거령을 단행한다. 이 금지령 이후 天正카루타는 모습을 감추다가, 1716-1735년(享保年間)「메쿠리 카루타(めくりかるた)」가 막부의 허기를 받아 허용된다. 하지만 1764-1769년(明和安永年間)에 이르러 또 과열 상태에 이르자 다시 금지령을 단행한다. 그러자 사람들은 금지된 카루타를 대신할 새로운 카루타를 고대하는데, 1804-1816년(文化年間)에 탄생한 것이 바로 「하나후다(花札)」이다. 장인들은 하나후다가 도박용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도안도 서양풍에서 일본풍으로 바꾸고, 게임 규정도 재정비하여 외견상 이전의 것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하나후다는 도박계통의 「天正카루타」와 교육계 카루타의 흐름을 잇는 「花鳥組合 카루타」를 절충한 것이다. 최초의 하나후다는 1800년(寛政12年)에 창업한 교토의 오이시텐구도(大石天狗堂)에서 제조한 것이다.⁷⁾ 또 다른 가설로는 교토의 관리(公家)와 오사카의 투기꾼(相場師)이 합심 창작했다는 설⁸⁾도 있지만, 아직 명확히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 이 「花鳥組合 카루타」 도안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그 계절의 대표 식물(꽃 나무 등)을 그려놓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동물을 배치하고 거기에 단사쿠(短冊)⁹⁾까지 그려 넣었다. 가령 1월 경물은 소나무에 학, 2월 경물은 매화에 두견새, 10월 경물은 단풍과 사슴의 조합이다. 하나후다 패 구성은 살펴보면 「광(光), 열(闊), 단(短), 피(皮)」로 나누어져 있으며 광은 다이묘(大名), 열은 무사계급, 단은 관료계층, 피는 평민을 뜻하며 에도시대의 신분관계¹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하나후다는 평민들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침투해 갔는데 1811년(文化8年) 일본근해 항해도중 조난당한 러시아 해군 V. M 고르닌이 쓴 회상록『일본유수기』(『日本幽囚記』)에도 당시 하나후다에 대한 내용이 있다.¹¹⁾이처럼 하나후다는 유럽의 CALTA가 일본에 유입된 이후 탄압 - 개량, 또 다시 탄압 - 개량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도안의

神)께 소원을 비는 것 보다, 돈을 걸고 가루타 신에게 비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구두쇠조차 도박에 미치게 하니 세상일은 참 알 수 없다.”

井原西鶴 (1996)『本朝二十不幸』『日本古典文学全集 井原西鶴集 二』小学館、p.222(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 7) 池間里代子(2009)『花札の図像学的考察』『社会学部論叢』第19巻 第2号、p.13
- 8) 寒川廣行(1974)『花札入門』日本文芸社、p.10
- 9) 短冊-와카, 하이쿠를 쓸 때 사용하는 종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로 36센티 세로 6센티 정도이다. 종이를 덧붙인 것, 모양이 있는 것, 비단천이 씌워져 있는 것이 있다. 가마쿠라 말기까지 사용되었고, 현재도 와카, 하이쿠, 그림 등을 그릴 때 사용한다.
- 10) 寒川廣行, 전계서, pp.15-21
- 11) 寒川廣行, 전계서, p.32 재인용 “일본인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 그들이 하는 하나후다 게임은 서양의 카루타를 개량한 것인데, 서양의 트럼프가 지금의 형태가 되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것인데 비해, 하나후다는 겨우 2백년 사이에 이처럼 뛰어나고 재미있으며 게다가 도박성이 풍부한 참으로 새로운 게임을 탄생시켰다.”

변화를 통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수요자의 요구가 맞물려 탄생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4. 하나후다 図案과 詩歌

하나후다 탄생은 지나친 도박 열풍을 몰고 온 天正카루타의 금지령과 맞물려 있다. 하나후다는 카루타와는 차별화된, 도박이라는 선입관을 배제시키고, 다소 교육적 의미를 내포해야 했다. 그리고 하나후다 도안이 花鳥風月로 정착되기까지 와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겨루는 가이아와세(貝合わせ)나 우타카루타(歌カルタ)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18세기 에도시대 우키요에(浮世絵) 화풍과 결합하여 하나후다 도안의 원형이 갖추어 졌다¹²⁾고 한다. 와카에 대한 문학적 소양을 갖춘 관료(京都의 公家)가 각 계절의 詩歌를 선별 하면, 화가가 적합한 도안을 구상하고, 투기꾼들은 도박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게임 방법을 완성하는 협업(協業)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후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후다 도안에는 사계의 변화를 담고 있는 와카의 서정적 서경적 요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와카의 소재가 하나후다 경물도안으로 발전하기까지 至難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일본인의 사계에 대한 관념이 하나후다 경물과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4.1 1월의 경물 - 소나무(松)+학(鶴)

1월은 절기상 상록수 외에 다른 식물들을 보기 어려운 달이다. 때문에 한겨울에도 초록을 유지하는 소나무에 대한 상서로운 정서가 있었을 것이다. 원래 소나무는 「일본어에 있어서 기다린다(待つ)는 뜻에서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나무’(神の天降りを待つ木)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르는 축제의 나무로써, 이는 바로 희망을 가지는 것이며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일의 성취를 이루는 상록수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¹³⁾고 한다. 때문에 정월 초하루 가도마쓰(門松)를 현관에 세워 두고 한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했다.

소나무는 『만요슈』와 『하치다이슈』(『八代集』)의 9502수 가운데 472수에 언급되어 일본인

12) 권현주(2004)「花札의 “전통 문화 기호”와 花闘의 “놀이 문화 기호”考察」『일본어문학』제23집, p.204

13) 임성철(2002)『일본고전시가 문학에 나타난 자연』보고사, pp.104-105

에게 상당히 친숙한 소재이다. 그리고 소나무와 조합을 이루고 있는 학(鶴)은 『만요슈』에 47수, 『고킨슈』에 5수, 『신고킨슈』에 4수, 『고센슈』(『後撰集』)에 4수, 『슈이슈』(『拾遺集』)에 13수가 언급, 시가에서 언급 빈도수가 높은 조류 4위에 속한다.¹⁴⁾ 소나무는 단독 소재로도 언급 되지만, 소나무와 학이 조합된 시가도 보인다.

가) 見わたせば松のうれごとに住む鶴は千代のどちとぞ思ふべらなる 土佐日記¹⁵⁾

(소나무 가지에 사는 학은 소나무를 마치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친구로 여기네)

나) 雲居よりおりゐる鶴の千代ふべきすみかはとはの松にぞありける 夫木和歌抄 卷27¹⁶⁾ 藩原 資隆
(구름에서 내려 온 학 천년의 거처는 소나무였네)

예로부터 짐장생(十長生) 중 하나인 소나무와 학은 일본인의 생명력과 장수에 대한 염원이 전형화 된 경물로서, 상서로운 새해에 어울리는 도안이라 할 수 있다. 또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진 외형 때문에 변치 않는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문학소재로 빈번히 쓰였다. 붉게 솟아오르는 일출을 배경으로 소나무에 날아든 학의 도안은 경사스런 한해의 출발을 상징한다.

4.2 2月 매화(梅)+휘파람새(鶴)

1월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로서의 굳건함과 기개를 나타낸다면, 2월의 경물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오는 기다림의 품격을 지닌 꽃이다. 한풍과 혹한의 기운이 남아있는 가지에서 짹을 틔우고 더없이 고귀한 향기를 풍긴다. 도야마 사부로(外山三郎)는 『초목세시기』(『草木歲時記』)에서 「매화꽃에는 화려함은 없다. 농염함도 없다. 오히려 청초하고 우아하고 그 가지 모양은 소박하고 야취가 넘치며 고고한 감조차 있다. 게다가 매화는 이상하게도 강인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를 베면 벌수록 짹을 틔우고 가지를 뻗치는 것이다.」¹⁷⁾라고 하여 매화의 소박함 속에 풍기는 강인함과 기품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매화는 혹한의 한기를 참고 쉽게 순을 터트리지 않지만 그 추위를 인내하고 그 어떤

14) 일본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새의 순위를 가집에 나타난 빈도수로 측정해 본 결과 1.두견새 2. 휘파람새 3.기러기 4.학 5.물떼새(千鳥) 6.뻐꾸기 順이라고 한다. 임성철, 전계서, p.35

15) 菊地靖彦 外2人 校注譯(2000)『日本古典文学全集 土佐日記』小学館、p.26

16) 新編国歌大觀編集委員會(1984)『新編国歌大觀』角川書店、p.12633(이하, 고전시가의 인용은 본서에 의하며 별도로 注를 별기하지 않는다. 시 번역은 필자에 의함)

17) 外山三郎(1982)『草木歲時記』八坂書房、pp.42-43

꽃 보다 먼저 개화한다. 그 때문인지 매화를 일컬어 「완룡(完弄)의 꽃이 아니라 존경스레 우러러 볼만한 꽃이며 군자(君子)의 꽃」¹⁸⁾이라고 했다. 이러한 매화와 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휘파람새인데, 특히 『슈이슈』에 보이는 무라카미천황(村上天皇)의 앵숙매(桜宿梅) 고사는 이 조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¹⁹⁾

사실 『만요슈』를 비롯하여 후대 시가집에 언급된 조류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언급 빈도수도 높다. 특히 『만요슈』에는 5백 수십 수에 달하는 새가 등장한다고 한다. 다만 그 품종이 30여 종류에 그치며 특히 두견새 휘파람새 학 오리 물떼새 등 6종류가 새를 노래한 총수의 60%를 점하고 있다.²⁰⁾ 그리고 『만요슈』노래가 새 울음소리를 객관적으로 읊었다면, 『고킨슈』 이후에는 새의 울음소리에 개인의 심정을 비유한 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물에 대한 인식이 시대별 흐름에 따라 写実 比喻 象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 오카다 세이치(岡田誠一)는 『日本短歌論』에서 「본래 写実은 比喻 象徵으로 발전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요슈는 사실, 고킨슈는 비유, 신고킨슈는 상징이다」²¹⁾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만요슈』에 수록된 매화와 휘파람새 조합의 노래를 살펴보자.

- 가) 我が宿の梅の下枝にあそびつつうぐひす鳴くも散らまく惜しみ 万葉 842 目高氏海人
 (매화나무 가지 끝에 휘파람새 지는 꽃이 아쉬워 울고 있네)
- 나) 折りついれば袖こそにはへ梅の花ありとやここにうぐひすの鳴く 古今集 卷一 32 読み人知らず
 (매화 꺾어 든 소매에 향이 배어 꽃이 핀 줄 알고 휘파람새 날아와 우네)
- 다) 鶯の笠に縫ふといふ梅の花折りてかざさむ老いかくるやと 古今集 卷一 36 東三條左大臣
 (휘파람새가 벼드나무 가지로 엮은 삿갓에 매화꽃 치장하네. 늙은 얼굴 가려지도록)
- 라) 鶯の鳴く野ごとに來てみればうつろふ花に風ぞ吹きける 古今集 卷二 105 読み人知らず
 (가는 봄 아쉬워하며 휘파람새 울면 바람 불어 꽃잎 떨어지네)

18) 外山三郎 전계서, p.10

19) 무라카미천황(村上天皇) 앵숙매(桜宿梅) 관련 고사는 『大鏡』『十訓抄』에도 언급 무라카미천황 치세 때 궐 앞에 심은 매화가 말라죽어 대신 심을 좋은 수종의 매화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하였다. 마침 교토 어느 저택에 이름난 홍매가 있어 그 나무를 캐오라는 칙명이 내려졌고 인부들이 그 나무를 파서 운반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휘파람새가 등지를 틀고 있어 그 집의 여주인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그 노래에 “칙명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등지를 틀고 있는 휘파람새가 내 보금자리는 어디에 라고 물으면 어찌 대답해야할지”라고 적혀 있었다. 후에 천황이 이 시를 보고 매화나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관련시가 -勅なればいともかしこし鶯の宿はと問わばいかか答へむ 拾遺 卷九, 531

20) 임성철 전계서, p.37

21) 岡田誠一 (1974)『日本短歌論』教育出版, p.171

가는 휘파람새가 매화나무 가지 끝에 찾아와 울고 있는 *写実的* 상황을 읊은 것으로, 매화나 휘파람새를 다른 사물을 빗대어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작법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 나)다라는 『고킨슈』의 노래인데 휘파람새가 소매에서 풍기는 매화향기를 맡고 날아든다거나, 매화꽃을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을 가려주는 장식품, 떨어지는 꽃잎을 아쉬워하는 애석함을 휘파람새의 울음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고킨슈』 노래에 대해 스즈키 히로코(鈴木宏子)는 공간을 확대하고 시간과 함께 변화해가는 봄의 자연 속에 명료한 형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했다고 설명한다.²²⁾ 또 노구치 스스무(野口進)는 『만요슈』시대보다 감상적 서정성은 한층 강해지면서 이지적 경향을 띠며, 의인법과 비유의 수사법이 발전하고, 자연에 의탁한 불교적 무상관을 토로하는 경향이 현저해 졌다고 주장한다.²³⁾ 다음은 『신고킨슈』의 노래이다.

마) 梅が枝になきてうつろふ鸞の羽根しろたへにあは雪ぞふる 新古今 卷一 30 読み人知らず
(매화 가지위에 울며 날아가는 휘파람새 날개에 담설 내리네)

마)의 「あは雪」은 「담설」의 의미로 매화가 만개하여 새하얀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실제 풍경을 보고 읊은 것이 아니라 상상속의 매화와 휘파람새를 읊고 있다. 이처럼 매화와 휘파람새는 꽃과 향기로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매화 가지에 날아와 ‘호케쿄오’ 울어대며 봄을 축복하거나, 때로는 지는 봄이 아쉬운 듯 구슬피울기도 한다. 특히 휘파람새는 눈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강인한 매화를 보다 부각시키는 경물이라 할 수 있다. 매화는 비록 혜안시대(平安時代)에 들어서면서 벚꽃에게 봄꽃의 최고 자리를 내주기는 하기만, 소박한 기품과 여유로움, 그리고 엄동설한의 한파를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모습에서 오래도록 세인의 주목을 받은 꽃이다. 매화의 기품 있는 향기를 마치 고운 음색으로 전해주는 휘파람새의 조합은 화조가(花鳥歌)의 전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화가 2월을 상징하는 하나후다의 도안으로 선택된 것은 일본인의 꽃과 새의 정서를 잘 파악한 것이다.

4.3 3月 벚꽃(桜)+장막(幙幕)

벚꽃은 사계절이 뚜렷한 일본의 기후풍토에 적합하여 산과 들, 언덕, 정원 등 특별한 장소를

22) 鈴木宏子(2000)『古今和歌集表現論』笠間書院、pp.107-110

23) 野口進(1975)「古今集の自然観照—特に四季歌を中心にして」『金城学院大学論集』通卷 第65号、『国文学編』第18号、p.17

가리지 않고 자생한다. 일본의 국화(国花)이며, 일본인의 마음과 생활의 면면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일본다운 꽃이 할 수 있다. 벚꽃에 대한 기록은 上代의 『니혼쇼키』(『日本書記』)리추천황(履中天皇) 3년 11월 기사²⁴⁾ 또는 『고지기』(『古事記』)리추천황(履中天皇)의 치세 중 와카사 쿠라베노오미(若桜部臣)들에게 와카사쿠라베(若桜部)라는 이름을 수여했다는 기사²⁵⁾가 있다. 벚꽃은 혜안(平安)시대 이후에는 꽃 중의 꽃으로 지칭되었다. 기노 쓰라우키(紀貫之)의 「桜よりまさる花なき春なればあだし草木を物とやは見る」(벚꽃을 뛰어넘는 꽃이 없다네. 봄 초목산천을 둘러보아도) 노래에도 벚꽃은 봄꽃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다. 그런데 이 벚꽃의 감상법이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가 보인다. 「나라(奈良)시대에는 산야에 자생하는 벚꽃을 있는 그대로 관상하려는 자연의 벚꽃을 주제로 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윽고 텐표인들은 산야의 야생 벚꽃을 자기 집 정원에 이식하는 것에서부터 제2의 자연이 형성된 것이다.²⁶⁾라고 설명한다. 벚꽃과 연관된 노래는 다음과 같다.

- 가) さくら花散りぬる風のなごりには水なき空に波ぞ立ちける 古今 卷二 89 紀貫之
(벚꽃 지는 바람의 여운에 물 없는 하늘에 파도 일렁이네)
- 나) みよし野の山にさける桜花雪かとのみぞあやまたれける 古今 卷一 60 紀友則
(요시노 산에 만개한 벚꽃 마치 눈 같은 착각이 드는구나)
- 다) み吉野の高峰の桜散りにけり あらしもしろき春のあけぼの 新古今 卷二 133 後鳥羽上皇
(요시노 봉우리에 벚꽃이 지네. 꽃잎 휘날려 태풍마저 흔 봄 새벽이여)

위의 시에서 벚꽃을 일렁이는 파도 혹은 흰 눈에 비유하고 있다. 또 벚꽃의 명소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요시노(吉野)인데, 하나후다의 5점 폐 단사쿠에 「みよし」라고 명기하여 요시노의 벚꽃명소로서 지명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후다 3월 경물인 벚꽃은 여느 달처럼 꽃과 새, 혹은 동물의 조합이 아닌, 장막(幔幕)이 도안되어 있다. 원래 장막은 천황의 야외 행차 때 성스런 장소로서의 경계 구분, 아악(雅樂)연주, 혹은 지체 높은 황족이나 귀족들의 야외행사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꽃놀이(花見)가 일반화되고 장막도 점차 신분여하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하게 되자 하나후다에 도안된 장막은 마치 숨은 그림처럼 꽂눌

24) 이와레(磐余)의 이치시노이케(市磯也)에 배를 띠워 연회를 열고 있는데 벚꽃 피는 계절도 아닌데 술잔에 벚꽃이 떨어졌다. 천황이 모노노베 나가마이노무라지(物部長眞胆連)에게 명하여 대체 어디서 온 꽃인지 알아보라 명하니 그가 벚꽃을 찾아 천황에게 바쳤다. 이후 이와레궁(磐余宮)을 이와레노와카사쿠라노미야(磐余稚桜宮)로 개명했다는 일화가 보인다.

小島憲之 外 4人 校注 訳(1996)『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 2』小学館、p.89

25) 山口桂紀 神野志隆光 校注 訳(1996)『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小学館、p.315

26) 임성철 전계서、p.225

이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다른 달에는 꽃(혹은 식물)과 동물(새 사슴 멧돼지 등)이 조합되어 있지만, 3월의 경물은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장막을 치고 꽃놀이를 즐기는 상춘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4 4月 등(藤)꽃+두견새(時鳥)

4월 경물 조합은 등꽃과 두견새다. 예로부터 두견새는 가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만요슈』에 155수가 실려 전체 노래의 3.43%를 차지한다. 또 그중에서 등꽃과 두견새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노래는 9수에 이른다. 그리고 『고킨슈』에 43수가 실려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4수의 夏歌 중 28수(82%)가 두견새에 관한 노래이다.²⁷⁾ 두견새는 시조(時鳥), 자구(子規), 불여귀(不如帰), 과공조(郭公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초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일본산지에 날아오는 철새의 일종으로 주로 밤중에 활동한다. 때문에 한밤중 울음소리를 들은 시가 많다.

- 가) 夜やくらき道やまどへるほととぎすわが宿をしもすぎかてに鳴く 古今 卷三 154 紀友則
(밤이 어두워서일까 길을 잃어서 일까 두견새가 내 집 상공을 날지 못하고 울고 있네)
- 나) わが宿の池の藤波さきにけり山郭公いつか來鳴かむ 古今 卷三 135 読み人知らず
(우리 집 연못가에 등꽃이 피었네. 두견새는 언제 날아와 울어줄까?)
- 다) 時鳥まつにかぎりて明かす藤の花とや人はみるらむ 金葉 124 「待時鳥」
(두견새 기다리며 밤 밝히네 사람들은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등꽃으로 봐주려나)

가는 어둠속에 울고 있는 두견새, 나)다)의 노래는 두견새와 등나무 조합의 노래이다. 등꽃과 두견새의 조합은 두견새가 날아올 때 등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꽃은 원래 연보라색인데 하나후다의 도안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다. (때문에 종종 흑싸리와 혼동되기도 한다) 이처럼 연보라가 아닌 검정색으로 채색된 것은 등꽃과 조합을 이루고 있는 두견새의 활동시간과 관계가 있다. (4월째 도안을 보면 두견새 위에 달(月)이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견새는 주로 밤에 그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이 새가 등지를 트는 곳이 바로 등꽃나무이다. 이처럼 초하(初夏)의 대표적인 경물로 수많은 와카에 언급된 등꽃과 두견새가 하나후다의 4월째에 도안된 것은 특정 경물의 활동시간까지 고려한 일본인의 세심한 자연 관조를 짐작할

27) 大川五兵衛(1998)「古歌の動植物取合せ考」『文学研究』第13号、聖徳学院短期大学国語国文学会、p.47

수 있다.

4.5 5月 창포(菖蒲、かきつばた、あやめ草)+야쓰하시(八橋)

단오절이 있는 5월은 창포와 야쓰하시(八橋)가 도안되어 있는데 창포는 「菖蒲」「あやめ草」 또는 「かきつばた」로 부른다. 하나후다에 등장하는 식물 가운데 유일한 수생식물로, 강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식물이다. 이 꽃은 일본 전역의 산야에 자생하며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하는데 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폭이 좁은 나무판자를 이어 물가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든 산책용 다리 야쓰하시(八橋)와의 조합이 5월 도안이다. 창포와 야쓰하시에 관련된 일화는 『이세이야기』(『伊勢物語』)의 「미가와 마을의 야쓰하시」(「三河の国八橋」)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하나후다 5월 경물 도안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²⁸⁾

- 가) 唐衣きつつなれし妻しあればはるばるきぬる旅をしづ思ふ 古今 卷九 410 在原業平
(당의 닳도록 입은 익숙한 아내가 있건만 참으로 먼 객지를 떠돌고 있구나)
- 나) なべて世のうきになかるあやめ草今日までかるねはいか見る 新古今 卷三 223 上東門院小少将
(진흙 속 피어나는 뿌리 긴 창포처럼 오랫동안 울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 다) 沼ごとに袖ぞ濡れけるあやめ草ころに似たる根を求むとて 新古今 卷十一 10423 三条院女人左近
(늪처럼 내 소매도 눈물에 젖어 있네요 창포 뿌리처럼 깊이 당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처럼)

창포는 물속에 뿌리를 내리는 수생식물의 이미지 때문인지 인생사의 변화무쌍함과 대비된 굳건한 연정을 읊은 노래가 많다. 또 창포 뿌리는 단오절 불로장생의 재료로 쓰이거나, 창포주를 담아서 마시는 등 심신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약용식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5월 경물 창포와 조합된 것은 동물(새 혹은 사슴)이 아닌 야쓰하시이다. 고전시가에서 초하의 대표 경물은 두견새가 일반적인데, 두견새는 이미 4월 등꽃과 조합을 이룬 상황이어서 5월의 경물로 재등장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3월의 장막처럼 단오절을 맞아 연못가에 만발한 창포를 관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숨은 그림처럼 야쓰하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5월 경물 야쓰하시는 단오절을 즐기는 상춘객을 상징하는 문학적 기호라고 판단된다.

28) 大川五兵衛(1980)「花札の古典的背景(上)」『文学研究』第12号、聖徳学院短期大学国語国文学会、p.119

4.6 6月 목단(모란)(牡丹、ふかみ草)+나비(蝶)

목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고시미즈 타쿠지(小清水卓二)에 의하면 10세기경 규슈(九州)의 지쿠젠(筑前)부근에 처음 전래되었다고 한다.²⁹⁾ 또 『이즈모 풍토기』(『出雲國風土記』) 오우군(意宇郡) 기사에 후카미구사(深見草)³⁰⁾로 표기된 것이 바로 목단이다. 하지만 『만요슈』『고킨슈』『신고킨슈』에는 목단에 대한 시가 한 수도 실려 있지 않다. 아마도 일본인의 정서상 다소 이국적 분위기의 화려한 외형 때문으로 짐작되는데 니시야마 마쓰노스케(西山松之助)는 「모란은 호화롭고 화려한 꽃으로 조금도 애수를 남기지 않고 눈물을 흘릴만한 꽃이 아니기 때문」³¹⁾이라고 했다. 즉 작고 소박한 꽃을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화려하고 농염한 화형(花形)의 모란은 일본인에게 다소 이질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꽃이 「약용식물의 야생화에서 관상식물의 재배형식으로 이행되면서 특히 중세의 선종의 종교적 의미와 모란 전성기의 모모야마(桃山)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꽃」³²⁾으로 자리매김 한다.

그리고 이 목단과 조합을 이루고 있는 나비는 『莊子』의 「齊物論」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中国祥瑞象徵圖說』에 의하면 나비는 長寿를 의미³³⁾한다고 한다. 목단은 여름 계어(季語)이다. 다양한 종류의 하나후다 중에 에쓰고 하나후다(越後花)에는 12달 가운데 유일하게 6월 달에 시가가 적혀있지 않다. 아마도 『만요슈』『고킨슈』『신고킨슈』에 목단 노래가 1 수도 실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목단은 「서 있으며 작약(芍藥), 앉으면 목단(牡丹)」 외에도 부귀화(富貴花), 보상화(宝相花), 귀객(貴客), 목작약(木芍藥), 화왕(花王), 화신(花神), 천향(天香), 백양금(百兩金), 낙양화(洛陽花)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中国祥瑞象徵圖說』에도 모란은 부귀를 의미한다³⁴⁾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목단의 별칭 가운데 보물 금전과 관련된 명칭이다. 하나후다 도안자에게 금전과 연관된 명칭은 흥미로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외래화종의 크고 화려한 외형은 일본인의 정서상 다소 부담스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귀영화와 금전과 관련한 의미를 가진 목단은 6월을 상징하는 하나후다 도안으로 더없이 적합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서상 일본인에게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은 목단이 6월의 경물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9) 小清水卓二(1970)『萬葉の草・木・花』朝日新聞社、p.60

30) 秋本吉郎 校注(1985)『日本古典文学大系 風土記』『出雲國風土記』岩波書店、p.100

31) 西山松之助(1984)『花』日本放送出版協会、p.35

32) 임성철 전계서、p.378

33) 『中国祥瑞象徵圖說』(2005)人民美術出版社、p.28

34) 『中国祥瑞象徵圖說』전계서、p.227

4.7 7月 싸리(萩)+멧돼지(猪)

『만요슈』 노래 중 식물소재(꽃, 단풍) 빈도수는 싸리(萩) 풀(草) 매화(梅) 꽃(花) 단풍(もみじ) 순³⁵⁾이다. 1위를 차지하는 싸리는 141수로 고대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식물 중의 하나였다. 싸리는 萩(はぎ)라고 하여, 漢字 「萩」는 <풀 艸 +가을 秋>의 일본식 한자(国字)로서 가을 풀꽃을 대표하는 식물³⁶⁾이다.

- 가) 我が宿の秋萩の上に置く露のいちしろくしも我変ひめやも 萬葉 卷十 2255
 (우리 집 싸리 위에 맷한 이슬처럼 내 사랑도 사람들 눈에 저리 띠는 것일까)
- 나) 風吹けば玉散る萩の下露にはかなく宿る野辺の月かな 新古今 卷四 386 藤原忠通
 (바람 불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싸리에 맷한 이슬방울에 달빛 비추네)
- 다) 故郷の本あらの小萩咲きしより夜な夜な庭の月ぞうつろふ 新古今 卷四 393 摂政太政大臣
 (황폐한 고향땅에 억새가 피어 정원 위 달빛이 밤마다 비추네)

고대인이 사랑한 싸리는 야마하기(山萩) 노하기(野萩) 시라하기(白萩) 고하기(小萩) 고보례하기(こぼれ萩) 미다례하기(乱れ萩) 하기치라코(萩散子) 하기하라(萩原) 하쓰하기(初萩) 하기도노(萩の戸) 하기노누시(萩の主) 하기미(萩見) 등 다양한 표현이 보인다. 그런데 하나후다에 도안된 싸리는 4월의 등꽃과 구별하기 위해 홍싸리로 채색되어 있다. 또 시가에 싸리와 가장 자주 조합되는 동물은 사슴, 혹은 기러기인데 하나후다의 경물은 사슴도 기러기도 아닌 멧돼지이다. 사실 싸리와 멧돼지의 조합은 『만요슈』『하치다이슈』(『八代集』)를 비롯하여 『후보쿠 와카쇼』(『夫木和歌抄』) 등의 가집 가운데 다음 1首가 유일하다.

照る月に萩のもとあらも下枯れてけぎよく見ゆるまだら猪のふし 夫木和歌抄 12938 源仲正
 (달빛아래 싸리 꽃 시들어 버린 탓에 얼룩 멧돼지의 골격 상세히 보이네)

그러면 시가에서 빈번히 조합되는 사슴이나 기러기 대신 왜 멧돼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上代에는 멧돼지나 사슴 모두 「しし」라고 하였고, 멧돼지라고 특정 하는 경우는 「멧돼지」(いのしし)로 지칭했다고 한다.³⁷⁾ 사슴은 하나후다 10월 경물에 단풍과 조합을 이루

35) 최재철(2013)「일본문학에 나타난 계절 표현의 유래-춘추우열 경쟁 소재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 제88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78

36) 단 万葉時代에는 「萩」가 아닌 「茅子」「波疑」로 「波疑」표기되어 있으며, 山上億良가 선정한 <秋の七草> 중의 하나이다.

37) 大川五兵衛 전계서, p.6

고 있기 때문에 싸리와 더불어 가을의 계어(季語)인 「멧돼지」를 7월 경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4.8 8月 억새(薄、芒、尾花)+기러기(雁)

8월의 경물은 가을 들판에 나부끼는 억새와 기러기의 조합이다. 억새는 『만요슈』에 薄, 芒, 또는 꽃이 지면 마치 짐승의 꼬리처럼 이삭이 피는 이유로 尾花 등으로 불린다. 이처럼 「동일물(同一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의 식물이 세 가지 이름으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억새가 유일하다.』³⁸⁾고 한다. 다음은 억새에 관한 시가이다.

- 가) はたすき穂に咲き出ぬ変を我がする玉かぎるただ一目のみ見し故に 萬葉 卷十 2311
 (억새꽃 피었네. 단지 한번 밖에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것일까)
- 나) 我が宿の尾花が末に白露の置きし日よりぞ秋風も吹く 新古今 卷五 462 中納言家持
 (억새 끝에 이슬 맺히는 그날부터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네)

억새는 이삭이 피기 시작하면 금색에서 은색으로 변해 마치 일렁이는 파도처럼 가을 들판을 수놓는다. 이처럼 억새 무성한 가을 들판 하늘 위로 날아가는 기러기와 조합을 이루는 것이 8월의 도안이다. 기러기는 3마리 도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雁行을 표현한 것³⁹⁾이라 한다. 이 시기에 무리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모습은 일본의 대표적 가을 풍광 가운데 하나이다.

- 가) 草枕ゆふべの空を人間はば鳴きてもつげよ初雁の声 新古今 卷十 960 藤原秀能
 (풀 베개 배고 누워 석양의 하늘을 고향사람이 묻는다면 기러기 네가 대신 가서 전해주렴)
- 나) 秋風に山飛び越ゆる雁がねのいへ遠ざかり雲隠れつつ 新古今 卷五 498 人曆
 (추풍의 산을 올며 넘어 날아가는 기러기 점점 멀어져 구름 속에 가려지네)
- 다) 秋風の袖に吹きまく峰の雲をつばさにかけて雁も鳴くなり 新古今 卷五 506 家隆朝臣
 (가을바람이 소매를 휘감는 산 봉오리 구름 속을 기러기 울고 있네)

위 시가에는 가을바람 맞으며 북녘을 향해 떼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에 대한 상념이 잘 드러나 있다. 1년 중 가장 둑근 달을 감상할 수 있는 만월을 배경으로 가을 들판에 나부끼는

38) 임성철 전계서, p.414

39) 大川五兵衛 전계서, p.7

여새와 북녘하늘로 날아가는 안행(雁行) 도안은 일본인이 상상하는 8월의 정취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9 9月 국화(菊)+술잔(盃)+감곡천(甘谷川)

9월의 도안은 국화와 술잔의 조합이다. 국화는 「황금빛 꽃이라는 학명(Chrysanthemums)처럼 가을꽃의 왕자요 가을을 상징하는 최상의 식물」⁴⁰⁾이다. 또한 「국화는 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향기도 고귀하여 불로장생의 영혼이 머문다고 하여, 영초(靈草)로 도연명(陶淵明)의 국주(菊酒)에 생명연장의 의미」⁴¹⁾를 담고 있다. 일본 「황실의 문장(紋章)이며 국주, 요리국, 약용적 효능뿐만 아니라 축의, 불축의, 경조」⁴²⁾등에 쓰였다고 한다. 또 「중양절 전야에는 국화 입힌 면으로 국화향기를 면에 옮겨 중구일 몸을 닦음으로서 늙음을 몰아내고 연명하는 행사」⁴³⁾를 행했다. 중양절에는 「각 가정마다 국화꽃을 장식하고 국화꽃을 선물하며 꽃잎이 많은 것은 <번영의 약속>으로 간주」⁴⁴⁾했다고 한다. 이 중양절은 본래 중국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남양(南陽)에 감곡천(甘谷川)이라는 하천이 있었다. 이 하천 상류에 커다란 국화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국화의 자액(滋液)이 냇물에 떨어져, 그 물을 마신 하류의 사람들이 장수를 했다고 한다. 이 고사와 관련하여 옮은 노래가 바로 『신코킨슈』에 수록된 다음의 와카이다.

- 가) 山川の菊の下水いかがればながれて人の老いをせくらむ 新古今 卷七 717 藤原興風
 (산속 국화꽃 하류로 흐르는 냇물은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일까)
- 나) いのりつつなほ長月の菊の花いづれの秋かうゑて見ざらん 新古今 卷七 718 紀貫之
 (장수를 비는 구월의 국화꽃이여. 해마다 가을이면 보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 다) 九重にうつろひぬともしら菊の元のまがきを思ひわするな 新古今 卷五 508 花園左大臣室
 (비록 궁궐에 옮겨 심어도 국화꽃이여. 본디 번창했던 이 집안의 토대를 잊지 말기를)

가) 노래는 국화의 효능으로 알려진 불로장생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의 기노 쓰라유기 노래에도 국화의 개화를 지켜보며 무병장수를 빌었던 일상이 엿보인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40) 임성철 전계서, pp.447-448

41) 임성철 전계서, pp.447-448

42) 임성철 전계서, pp.447-448

43) 임성철 전계서, p.487

44) 임성철 전계서, p.487

9월 9일 중양절에 즈음하여 국화연을 개최하여 「국화주를 마시며 불로장생을 기원했고, 혜안 후기에는 꽃의 관상이 왕성해짐에 따라 초화(草花)의 놀이」⁴⁵⁾가 생겨났다고 한다. 불로와 무병장수는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영원한 바람이다. 9월 도안에는 국화와 술잔, 그리고 감곡천이 조합된 중양절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4.10 10月 단풍(紅葉)+사슴(鹿)

10월 도안은 단풍과 사슴의 조합이다. 일본인은 단풍을 매화나 벚꽃처럼 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했으며, 그 어떤 사계의 경물보다도 미의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고킨슈』에는 단풍을 산 비단(山の錦), 그 비단을 직조하는 서리를 날실, 이슬을 씨실에 비유한 시가 있다.

霜の經露の緯こそよわからし山の錦の織ればかつかつ散る 古今 卷五 291 関雄
(서리의 날실, 이슬의 씨실이 유약한가 보다. 산 비단 짜고 있는 사이 지는걸 보니)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을 비단 천에 비유하는 것도 경이로운데, 단풍이 지는 것은 비단천의 실을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이 와카는 실제로 단풍 음미 최고의 노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단풍과 사슴이 조합을 이루는 노래이다.

- 가) 奥山の紅葉踏みわけ鳴く鹿の聲聞くときぞ秋は悲しき 古今 卷四 215 読み人知らず
(깊은 산 속 낙엽을 밟으면 걷노라면 저 멀리 들리는 사슴 우는 소리 쓸쓸함이 가슴을 저미네)
- 나) 下紅葉かづ散る山の夕時雨濡れてやひとり鹿の鳴くらむ 新古今 卷五 437 藤原家隆
(가을비에 낙엽 떨어져 흘어지고 사슴 한 마리 비에 젖어 홀로 울고 있네)
- 다) 小倉山峰の紅葉ば鳴く鹿の涙に染めて色に出づらし 藤原爲家
(오구라 산봉우리에 물든 낙엽은 울고 있는 사슴 눈물이 물들어 저런 색이 되었나)
- 라) 野分せし小野の草臥荒れはてみ山にふかきさ牡鹿の聲 新古今 卷五 439 寂連法師
(바람 부는 들판 잡자리 항폐해져 짹을 그리는 수사슴 울음소리)

가는 낙엽 진 산속에서 들리는 사슴의 울음소리가 마치 눈앞에 전달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청각적 비유가 뛰어난 시이다. 이처럼 혜안시대 가을 노래는 「사슴의 울음소리 그리고 나뭇잎의 변색 등을 들어 자연경물 내지는 현상의 조합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표출」⁴⁶⁾하는 것이

45) 임성철 전계서, p.487

특징이다. 또 나) 다) 라)의 노래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에 낙엽은 지고, 애잔함을 더하듯 멀리 사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가을의 쓸쓸함은 최고조에 달한다. 일본인은 단풍을 단순히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성찰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다. 즉 생존하는 모든 생물은 유전하며, 성자필멸(盛者必衰)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푸르고 무성한 나뭇잎도 가을이 되면서 서서히 붉은색으로 물들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또 그 낙엽이 다시 땅속에서 새봄을 열어주는 자양분으로 변화되는 전 과정이 「단풍」의 이미지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자연관에 비추어 볼 때 하나후다의 단풍과 사슴의 조합은 가을을 결실과 성찰의 계절로 인식하는 일본인의 독특한 사고를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

4.11 11月 베드나무(柳)+오노노 도후(小野道風)+개구리

11월 하나후다에는 베드나무와 관련된 인물의 일화가 담겨 있다. 시냇가의 베드나무 풍광을 읊은 노래는 시대를 막론하고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후다의 11월 광(光)패 도안을 상세히 보면 베드나무 곁에 우산을 쓴 남자가 서있고, 개구리 한 마리가 도약을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 도안은 도중에 바뀐 것이다. 에도 말기에는 「벼들과 종이우산(番傘)」이었는데, 메이지시대에 와서 「벼들과 오노노 도후(小野道風)」로 바뀌었다고 한다.⁴⁷⁾ 오노노 도후(894-967)는 혜안 시대에 활동한 일본의 대 서예가인데 그의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젊은 날 오노노 도후는 자신의 글씨에 좀처럼 진전이 보이지 않아 서예를 포기하기로 작심을 하고 집을 나섰다. 장마철이라 우산을 쓰고 넷가를 걷고 있는데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 그때 넷물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이 개구리는 굽류에 띠내려가지 않기 위해 베드나무 가지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빠른 물살과 싸우며 필사적으로 베드나무 가지에 올라섰지만 미끄러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력을 다하여 도약을 계속하여 마침내 베드나무 등지에 오르게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오노노 도후는 하물며 개구리 같은 미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저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자신은 너무 쉽게 서예를 포기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그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붓을 잡았고 훗날 대 서예가가 되었다.⁴⁸⁾

46) 노선숙(2006)「삼대집(三代集) 계절가에 관한 小考-가을과 봄의 노래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제31집, p.452

47) 인수현 전계서, p.213

48) <https://ja.wikipedia.org/wiki/%E5%B0%8F%E9%87%8E%E9%81%93%E9%A2%A8>(검색일: 2018.7.25.)

그런데 변경 전 「버들과 종이우산(番傘)」의 주인공은 위의 일화에 소개한 오노노 도후가 아니라 낭인모습의 접이우산을 쓴 남자의 뒷모습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가나데흔츄신구라(假名手本忠臣藏)』第五에 등장하는 도적 오노사다쿠로(斧定九郎)라는 인물⁴⁹⁾로 가부키의 등장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가 도적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도적에서 서예가로 도안을 바꾸었다고 한다. 또 일각에서는 오노(斧)와 오노(小野)가 동음이라 변환이 가능했다고 한다.⁵⁰⁾

이처럼 48장의 패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이 등장하고, 이 등장인물의 교육적 측면을 염두에 둔 11월 도안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4.12 12月 오동나무(桐)+봉황새(鳳凰)

12월 도안은 오동나무와 오동나무에만 날아온다는 봉황의 조합이다. 오동은 늦봄에 흰색 혹은 자주색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동나무의 계어(季語)는 여름이다. 따라서 오동나무는 12월 경물과는 적어도 관련이 없다. 더구나 12월은 한겨울이기 때문에 적합한 식물조합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오히려 하나둘다 제작자들에게 독창적 도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동나무는 일본어로 「きり(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きり(切)」와 동일한 발음으로 1년의 마지막 달의 의미와 오동나무의 발음을 매치시킨 것이다.⁵¹⁾ 또 국화가 황실의 문양이라면, 오동은 막부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봉황은 수컷을 봉(鳳), 암컷을 황(凰)이라 부르는 상서로운 새인데,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고 하여 봉황은 곧 천자(天子)를 상징하게 되었다. 오동나무와 봉황의 조합이 보이는 다음의 와카는 이런 관념을 잘 묘사하고 있다.

かげ高き桐のこずえにすむ島の聲待ち出でむ御代のかしこさ
新続古今 789
(드높은 오동나무 가지 끝에 날아오는 봉황새 소리. 고대하던 태평성대의 위대함이여)

이 시는 고대하던 태평성대가 도래했음을 봉황의 울음소리로 간파한 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둘다가 정착되기까지 수차례 금지령이 단행되었고, 이러한 금지령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12월 도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금지령을 피하기 위해

49) 土田衛白方勝(1975)『校注 假名手本忠臣藏』笠間書院、p.69

50) 寒川廣行 전계서, p.160

51) 大川五兵衛 전계서, p.9

권력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막부를 의식하고 칭송하는 자세가 12월 도안에 내포되어 있다. 서양의 조커와 유사한 보너스 기능을 가진 12월패는 막부의 위엄과 일본이 천자의 국가임을 표출하는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48장의 하나후다 도안 가운데 적극적인 자기방어와 생존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5. 나오며

하나후다 도안에 보이는 花鳥風月 소재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계절을 대표하는 동식물이 조합되어 있다. 하나후다가 명확하게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물 선택의 기조에는 일본인의 자연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만요슈』를 비롯한『고킨슈』『신고킨슈』 등 고전시가의 영향이 엿보인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의적 선택도 엿볼 수 있다. 7월의 싸리(萩)는 시가의 경우 보통 사슴 혹은 기러기와 조합을 이루는데, 하나후다는 멧돼지와 조합되어 있다. 시가에서 멧돼지와 싸리의 조합은 단 1수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후다는 멧돼지를 선택한다. 다른 패에 도안된 경물과의 조합을 고려한 것이다. 또 11월 도안은 원래 도적에서 일본 3대 서예가 중의 한 사람인 오노노 도후로 바뀐다. 이것은 하나후다가 단순히 도박과 연관된 오락 기구에 그치지 않고, 계몽적 사고에 의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변화과정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양의 조커와 유사한 보너스 기능을 가진 12월 도안은 막부의 위엄과 일본이 천자의 국가임을 표출하는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48장의 하나후다 도안 가운데 적극적인 자기방어와 생존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후다는 일본인의 사계에 대한 정서는 물론, 지리적 정서적 풍토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변화와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화 한 도안은 소재와 소재가 각각 동떨어진 대상이 아닌,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권현주(2004)「花札의 “전통 문화 기호”와 花闌의 “놀이 문화 기호”考察」『일본어문학』제23집, 일본어문학회, p.204
 노선숙(2006)「삼태집(三代集) 계절가에 관한 小考-가을과 봄의 노래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제31집 p.452

- 안수현(2005)「화투를 통해 본 日本古典詩歌에 관한 고찰 -萬葉集 및 八代集을 중심으로-」『아시아지역연구』 제8호, p.205
- 임성철(2002)『일본고전시가 문학에 나타난 자연』보고사, pp.104-105
- 최재철(2013)『일본문학에 나타난 계절 표현의 유래-춘추우열 경쟁 소재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제88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78
- 최재철(2014)『일본 고전문학 속의 사계 표현』『외국문학연구』제53호, p.459
- 秋本吉郎 校注(1985)『日本古典文学大系 風土記』『出雲国風土記』岩波書店, p.100
- 飯田龍太(1975)『俳句花の歳時記』文芸尾社, p.72
- 池間里代子(2009)「花札の図像学的考察」『社会学部論叢』第19巻 第2号、p.13
- 宗政五十緒 外2人 校注 訳(1996)『日本古典文学全集 井原西鶴集 二』『本朝二十不幸』小学館, p.222
- 岡田誠一 (1974)『日本短歌論』教育出版、p.171
- 大川五兵衛(1980)「花札の図柄の古典的背景(上)」『文学研究』第12号、聖徳学院短期大学国語国文学会 p.119
_____ (1998)「古歌の動植物取合せ者」『文学研究』第13号、聖徳学院短期大学国語国文学会、p.47
- 大隈秀夫(1978)『ギャンブル風土記』日本交通社、p.63
- 菊地清彦 外2人校注 訳(2000)『日本古典文学全集 土佐日記』小学館、p.26
- 小清水卓二(1970)『萬葉の草・木・花』朝日新聞社, p.60
- 小島憲之 外4人 校注 訳(1996)『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2』小学館、p.89
- 寒川広行(1984)『花札入門』日本文芸社, p.17
- 新編国歌大観編集委員会(1984)『新編国歌大観』角川書店, p.12633
- 鈴木宏子(2000)『古今和歌集表現論』笠間書院, pp.107-110
- 土田衛白方勝(1975)『校注 仮名手本忠臣蔵』笠間書院, p.69
- 外山三郎(1982)『草木歳時記』八坂書房, pp.42-43
- 西山松之助(1984)『花』日本放送出版協会、p.35
- 山口桂紀 神野志隆光 校注 訳(1996)『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小学館、p.315
- 箱崎総一(1981)『ツキを呼ぶ本』毎日新聞社, p.120
- 野口進(1975)「古今集の自然観照—特に四季歌を中心にして」『金城学院大学論集』第65、『国文学編』第18号、p.17
- 山口格太郎(1961)『うんすんかるた抄』リ-チ社, p.81
- 『中国祥瑞象徵圖說』(2005)人民美術出版社, p.28
- <https://ja.wikipedia.org/wiki/%E5%B0%8F%E9%87%8E%E9%81%93%E9%A2%A8>(검색일: 2018.7.25.)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要旨>

일본화투(花札)도안과 사계

김정미

하나후다 도안에 보이는 花鳥風月 소재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계절을 대표하는 동식물이 조합되어 있다. 하나후다가 명확하게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물 선택의 기조에는 일본인의 자연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만요슈』를 비롯한『고킨슈』『신고킨슈』 등 고전시가의 영향이 엿보인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의적 선택도 엿볼 수 있다. 7월의 싸리(秋)는 시가의 경우 보통 시습 혹은 기리기와 조합을 이루는데, 하나후다는 맷돼지와 조합되어 있다. 시가에서 맷돼지와 싸리의 조합은 단 1수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후다는 맷돼지를 선택한다. 다른 패에 도안된 경물과의 조합을 고려한 것이다. 또 11월 도안은 원래 도적에서 일본 3대 서예가 중의 한 사람인 오노노 도후로 바뀐다. 이것은 하나후다가 단순히 도박과 연관된 오락 기구에 그치지 않고, 계몽적 사고에 의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변화과정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양의 조커와 유사한 보너스 기능을 가진 12월 도안은 막부의 위엄과 일본이 천자의 국가임을 표출하는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48장의 하나후다 도안 가운데 적극적인 자기방어와 생존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후다는 일본인의 사계에 대한 정서는 물론, 지리적 정서적 풍토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변화와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화 한 도안은 소재와 소재가 각각 동떨어진 대상이 아닌,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panese Hanafuda Patterns and four seasons

Kim, Jung-Mi

Animals and plants representative for each month of a year are well arranged into the pictures of Hanafuda. It is not clear whom Hanafuda was made by, but scenery and customs on Hanafuda show Japanese emotion and idea on four seasons.

The selection of such scenery and customs seems to be basically influenced by the classic poetry of Mangyoshu, Kokinshu, New Kokinshu and Hyakuninshu.

This essay proves that Hanafuda is not simple tool for gambling and entertainment but was made in terms of education and enlightenment.

The scenery and customs of Hanafuda not only show Japanese emotion for four seasons but also are a kind of cultural code for geograph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Japanese. The combination of scenery and customs of Hanafuda is not made separately but well connected.